

# 회계와 기업 경쟁력

윤성수

고려대학교 경영대학

# 회계와 기업 경쟁력

- 회계의 목적:
  - 유용한(useful)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
  - 기업 내,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정보비대칭 (information asymmetry)을 감소
  - 최적(optimal) 의사결정을 지원
    - 자원 배분 결정: 기업 내, 외부
    - 자원 활용 결정: 기업 내부
  -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

# 기업 경쟁력

- 기업의 존재 이유(mission)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
- 기업의 mission
  - 주주가치 극대화(?)
  - 경영목표:
    - 이익최대화?
    - 지속 가능한 이익최대화

# 기업 활동과 회계

- 기업의 주요 활동
  - 재무(financing): 자본의 조달
  - 투자(investing): 자본의 생산시설에의 투입
  - 영업(operating): 재화/서비스의 생산과 제공
- 투자와 영업을 광의의 영업활동으로 묶으면 회계는 재무 의사결정과 투자/영업의 사결정의 질(quality)을 개선하는데 기여

# 회계와 기업 성과지표

- 주주가치 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간주
- 주주 관점의 기업 성과 지표:
  - 자기자본이익률(return on equity, ROE)
  - ROE = 투자자본이익률+ 재무레버리지 효과
  - 투자자본이익률(Return on Invested Capital, ROIC)  
= 세후순영업이익 / 영업투자자본
  - 재무레버리지 효과  
= (ROIC-세후가중평균자본비용)\*순재무부채/자기자본
- 회계는 ROIC와 자본비용을 통해 ROE에 기여

# 회계와 기업 성과지표

- 회계가 ROIC에 기여하려면:
  - 유용한 회계정보가 적시에(timely) 제공되어야
  - 의사결정자들이 회계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
- 회계가 재무레버리지에 기여하려면:
  - 자본비용을 절감해야: 타인자본과 자기자본
    - 외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
  - ROIC를 높여 자본비용과의 spread를 확대해야

# 기업 내부 의사결정 지원

- 과제

- 관리회계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투자 부진
- 계열사 지원 등 전략적 고려를 위한 원가배분 왜곡이나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한 정보 오염
  - 터널링: 임경묵과 조성빈(2007), 김병기 외 (2017)
- 재무정보에 치우치다 장기경쟁력 저해
  - 단기적 원가절감이 품질 저하와 성장동력 감퇴
- 유형자산에 치우쳐 무형자산 관리 소홀
  - 기업 경쟁력 핵심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

# 기업 내부 의사결정 지원

- 제안

- CFO는 CEO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야

- 균형성과표(Balanced Scorecard)

- '생존 부등식':

- $cost < price < value$

- 차별화(differentiation)전략: value 증가 시도

- 원가우위(cost leadership)전략: cost 감소 시도

- 의사결정을 어느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산출?

# 자본비용 절감

- 외부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고품질 회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
- 개별기업 차원
  - 내부회계제도 강화:
    - 최성호 (2013)
  - 정기공시 강화 등 회계투명성 강화:
    - 이호영 외 (2013)

# 자본비용 절감

- 자본시장 차원
- 현실:
  - 스위스 IMD 회계와 감사 부문 평가 최하
  - 상장법인 감사의견 99% 이상 '적정'
  - 비금융 100대 기업 2014년 시간당 감사보수: 7만 5천원
- 보완:
  - 회계정보 생산주체인 경영진의 책임 강화
  - 감사위원회의 전문성(과 독립성) 강화
    - 감사위원회 내 1인 이상 재무전문가 존재 비율 63%
  - 충분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:
    - 상장사 평균 감사시간: 한국 1,420시간. 일본 3,772시간
    -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: 한국 1억 700만원. 일본 4억 5,800만원

# 자본비용 절감

-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사례 (2014년)
  - 전년대비 외부감사보수 4배 이상 인상
  - 감사시간 증가:
    - 현대카드: 1,910시간에서 9,466시간으로
    - 현대캐피탈: 3,630시간에서 8,940시간으로
- 외부감사제도의 정비
  - 더 큰 사회적 비용을 회피하는 현명한 투자